

#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 Family-related Variables Influencing the School Maladjustment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angwon

류경희  
창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Kyung-Hee Ryu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researcher worked with 100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o as to inquire into the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 adolescents' school maladjustment from the results of th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s were the major findings.

1. The study activity was the first thing that the subjects did not adjust among their school life and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 with opposite-sex friends, the rule-keeping and the friendship were the next in the order.

2. The researches on family-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 school maladjustment were performed by gender(male / female), gender/school(male and middle / male and high/ female and middle / female and high), school(middle / high) and system(academic / vocational).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s were the structural environment one in case of male students and male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parent-relationship one in case of female students, female and middle school students, fe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one in case of high school students, ma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Key words** : school maladjustment, relationship with teacher, study activity, rule-keeping, friendship

### I. 문제의 제기

청소년기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의 압력과 욕구에 직면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고민과 방황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 심리 사회적 위기로 이어지기도 해서, 가정, 학교 및 사회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 행동을 야기하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부적응의 양상을 나타내는 경향이 높다(김현주, 2000). 청소년기 적응은 과거에는 가정이 그 기능을 거의 담당했으나, 오늘날은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중요한 성장 환경이 되었으며 학교에서의 적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70% 이상이 '흥미 없고 적성에 맞지 않은 수업'으로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엄격하고 불합리한 학교 규칙', '수준에 맞지 않은 수업내용', '학생들간의 살벌한 경쟁', '선생님의 체벌', '학생들간의 폭력',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어서'의 순으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국민일보, 1997). 또한 통계청 조사에서 15세에서 24세의 청소년 10명 중 6명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조선일보, 2002), 1999년 서울시 교육청 산하 12개 청소년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중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상담요청이 전체의 3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적지 않은 수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00).

학교는 가족에서 사회로 생활범위가 확대되는 환경으로서,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Dusek, 1987) 중요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Ryu  
Tel: 82-55-279-7652 Fax: 82-55-279-7650  
E-mail: ryukh@sarim.changwon.ac.kr

고,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교생활에 어려움 및 불만족을 호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앞선 세대로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어진다.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는 성공적인 정체감을 획득하고 성인기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인 1차 환경인 가정의 영향에 기초하고 있다.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가정의 영향력을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환경과 가족관계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류경희, 2003), 가족의 환경특성 중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형태,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 가족의 물리적, 구조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김준호, 1993; 오미경, 1998),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준호·김순형, 1995; 노성호, 1992; 오미경, 1998; Robertson & Simons, 1989).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문제 행동 상황으로 유도하는 중요하고도 일차적인 원인은 바로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에 있고(김준호, 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가정의 실패는 곧 학교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가정에서 성공적이면 대부분 학교에서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Fraser, 1996; 오수연 재인용 1999).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 가족환경 변인과 같은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이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가족원 수, 부모의 학력과 직업, 가정의 월수입, 부모 결혼상태 등의 가정특성 변인에 초점을 맞추었고(정유진, 1999), 그 외 가족기능에 따라 학교적응을 살펴본 연구가 있으며(이혜령, 2000),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들을 볼 수 있다(배숙진, 1998).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가정특성 변인과 부모자녀관계, 가족기능 등의 변인에 부분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을 뿐, 가족 배경 특성, 가족관계, 가정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는 차원에서 연구는 수행되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변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별과(배기명, 1983; 주현정, 1998; 현희순·김양순, 1999; 정유진, 1999; 이혜령, 2000) 연령(유윤희, 1994), 계열에 따라서(홍문균, 1996;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1998; 계선자 외 4인, 2001) 학교생활 적응 또는 만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성별, 연령별(연령의 차이가 나타나는 중·고등학교별), 계열별로 분석하고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한편,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발생원인을 과거에는 단순히 결혼가족이나 빈곤가정과 같이 가정의 구조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인식이 많았으나, 현재는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양친과 함께 사는 중류층 가정의 청소년에게도 보편화되며 확산되고 있어서(최영자, 1999), 학교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이나 상대적으로 학교 부적응 가능성이 많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부적응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별, 학교별, 계열별로 가족배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변인을 모두 고려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로써 가족적 관점에서 학교생활에서의 청소년들의 부적응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자의 성별(남/여), 학교별(중/고등학교), 계열별(인문/실업) 가족 배경의 특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창원시 중·고등학교의 성별(남/여), 성/학교별(남자 중학생/남자 고등학생/여자 중학생/여자 고등학생), 학교별(중/고등학교), 계열별(인문/실업)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창원시 중·고등학교의 성별(남/여), 성/학교별(남자 중학생/남자 고등학생/여자 중학생/여자 고등학생), 학교별(중/고등학교), 계열별(인문/실업)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생활 부적응의 개념

청소년들은 하루 활동시간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생활은 청소년기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학교생활에 대한 개념은 국어대사전에서 살펴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적 영역의 총체로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 학습 생활 등 비교육적 영역도 넓은 의미에서 포함되는 개념이다(이희승, 1994).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 학교생활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를 살펴보면, 이태인(1995)은 학교생활의 부적응 요인을 학교생활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학업부진, 또래와의 불만족스러운 관계, 교사와의 갈등관계, 이성친구와의 부적절한 교제 등으로 나누었고, 홍문균(1996)은 학교생활 만족도의 요인을 교사요인, 급우요인, 이성요인, 진로요인, 학업요인, 교칙요인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Halleck(1967)은 학교생활내의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의 요인을 학교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 급우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일, 담임 및 교과목 교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싫은 과목과 어려운 과목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껴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갖는 일, 학교생활에서 오는 열등의식 등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 영역은 크게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 규칙 준수, 이성관계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한편 부적응이라는 개념은 교육학대사전에서 '개인이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그 사회의 질서규범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사회에 대하여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개인 자신의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개인의 상태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편, 1993).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는 것은 부적응이 학교라는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교생활 부적응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달리 정의하고 있다. 이경은(1998)은 학교생활 부적응이란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 특성들이 학교라는 생활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이경은, 1998). 이 외에도 권복순 외 2인(1997)은 학교생활 부적응이란 다양한 부적응적인 행동 특성이 학교생활이라는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학생이 학교 및 학급사회, 학교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데 있어서 학교의 교육적 가치와 규범 그리고 질서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한 불균형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기태 외 9인(1996)은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해 여러 가지의 부적응적 행동특성이 학교생활이라는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학교생활 부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라는 생활영역 즉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이성 관계 등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

## 2.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영역을 크게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이성 관계로 대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사와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천혜숙(199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조사대상자의 약 42%가 교사와의 관계에 불만족하였으며, 교사의 선입견 및 편견, 폭언 및 체벌, 무관심 등으로 교사와의 인간적인 관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차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43.4%) 자신이 받은 처벌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응답자의 27.4%는 교사들이 자신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은 처벌이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정지인, 1997), 차별대우, 심한 간섭 등이 교사와의 불만족스런 관계원인이라고 보고 있다(곽방희, 1986). 학교에 부적응하게 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학생과 교사의 원만치 못한 관계를 들 수 있는데,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 의사소통 기술 부족, 권위적인 태도 및 학생지도에 대해 전문적인 이해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정지인, 1997).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가장 활발하게 상호 작용하는 사회제도이며, 인간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육에 대한 욕구와 권리를 다루는 사회적 장소이며 기관이다(이성희 · 이경은, 1998). 교사와 학생의 대인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은 학습뿐 아니라 학생의 성격형성, 태도 및 행동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친다(박용현, 1983). 청소년들과 접하는 교사들은 청소년의 학교경험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과 좌절을 증가시킬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권이종, 1996). 청소년들은 표면상으로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역할과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심층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심층적으로 될 때에 학생들은 마음의 안정을 제공받아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김종서, 1983).

두 번째로 교우 관계를 살펴보면, 지지적이고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심리적, 사회적으로, 그리고 학업에서 그 성취도가 높아 긍정적인 자존감과 가치감을 갖게 되며 인간관계에서도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고독감을 덜 느끼고(McGuire & Weisz, 1982),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즐겁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박현선, 1999). 이와 반대로 친구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갈등적이거나 적절한 관계형성 능력이 결여되고 소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따돌림을 당하거나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심지어 비행이나 정신질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문형춘, 1999). 또한 청소년의 또래관계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집단따돌림과 학교폭력이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45.4%의 청소년들이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9%의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계선자 등, 2001). 고등학교의 계열별 폭력 실태를 조사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에 의하면 인문계 고등학생의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은 6.5%, 폭력을 당한 피해경험은 전체의 4.4%로 가해 경험보다 다소 적은 비율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폭력의 빈도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 후의 행동을 볼 때 폭력 피해를 당했던 청소년 중 53.9%가 폭력 피해 여부를 신고하거나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46.1%만이 폭력피해 여부를 이야기 한 것으로 나타나 많은 청소년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후에도 피해 여부를 주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학습 활동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59.1%가 학업량에 대해 '매우 과중한 양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입시를 위한 과도한 학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계선자 등, 2001), 수능 성적을 비판하여 자살하는 사건까지 속출하고 있다(조선일보, 2002b). 청소년 관련연구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가 공부와 성적이고 그 다음이 진학과 진로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청소년 대화의 광장, 1996), 김기하(1997)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학습 면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부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시행된 학생생활·의식 실태조사에서 인문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량과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업량에 있어서는 인문계 고등학생의 43.9%가 학습량이 대체로 많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스트레스 정도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은 58.5%, 실업계 고등학생은 46.2%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하여,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네 번째 이성 관계에서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992)의 연구에 의하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45.5%이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문고생과 실업고생의 이성교제 비율을 보면 인문고생은 40.3%, 실업고생은 53.5%로 나타나 실업계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1998). 남학생의 경우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성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여학생들은 성지

식이 부족하거나 순결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있었다(김창대 등, 1994). 또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개입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짝사랑, 삼각관계, 질투 등의 고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김창대 등, 1994). 남학생들은 일반적인 여자 전체에 대한 관심과 막연한 고민을 하는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구체적인 관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창대 등, 1994). 이성친구를 사귀게 되는 동기는 남녀 학생 모두 '학원'과 '친구의 소개'가 주를 이루었으며,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사랑하는 사이' 혹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고 응답한 결과도 조사대상자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성정, 1996), 이성교제 시 100일 이내 성 행동을 경험하고 있었다(이정은, 1998).

마지막으로 학교 규칙 준수에서는 학교차별 경험이 있는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에 가기 싫었던 요인으로 학교규칙에 엄매이기 싫어서가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다(정지인, 1997). 또한 2001년도 조사에서도 중고생 53.5%가 지난 한달 동안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이유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학교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학교규칙(벌칙)을 지키기 싫었다'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규칙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조선일보, 2001). 한편 규칙준수 상황을 살펴보면, 김미하(1989)의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의 직업지위, 부의 교육수준, 모의 교육수준 등이 높은 경우가 낮은 경우의 학생보다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청소년의 성, 학교,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들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성, 학교, 계열별로 구분하지 않고 학교생활 부적응 및 적응, 그리고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연구한 선행연구들로 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았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들 중에서 가족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내는 가족배경 변인들의 영향에 관한 관련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양친이 생존하는 청소년일수록(이강선, 1999; 최지은·신용주, 2003),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혼일 때(이강선, 1999)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순, 1996; 최지은 · 신용주, 2003). 또한 홍순혜 등(1997)의 연구에서도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한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들보다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낮은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들에게 좌절감, 자신감 결여, 자기비하, 외로움 등을 야기 시키고 이로 인해 비행 행을 하게 되므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환경적인 변인의 영향에 관한 관련연구들에서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별거 등의 극단적인 갈등의 결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부재, 또는 갈등과 무관한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지 혹은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의 가족구성원의 부재와 같은 가정의 구조적 환경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부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청소년기의 부모의 이혼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 청소년들의 약물사용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행에 영향을 주고(Needle et al, 1990), 부모가 맞벌이로 인하여 청소년 자녀들을 가까이에서 돌보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녀들의 많은 문제를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Dusek, 1987), 어머니의 취업으로 자녀들과 남편은 보다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한다(Hoffman, 1979,1980; Kagan, 1980). 이재철(1994)의 연구에서도 결손가족과 일반(정상)가족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 결손 가족의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빈곤에 의한 양친의 무기력 또는 생활의 무질서 등이 방임과 폭력을 파생시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수, 1993; 김주홍, 1993).

또한 가정에서 부부간의 불화가 잦고 가정 내 갈등과 충돌이 많을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적대적이고 가족간에 화합이 안될수록,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선애, 1995; 김준호 · 김순형, 1995; 정유미 · 김득성, 1998; Shagle & Barber, 1993)에서 일관성 있게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계 변인의 영향에 관한 관련연구들에서는, 가족관계에서 청소년의 상당비율이 청소년기로 전환하면서 일상적 가족생활 영역에 대해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갈등을 겪는다고 한다(Montemayor, 1982, 1983, 1986; Steinberg, 1981).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녀 행동이 부모의 배척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자의식행동이 증가하므로 갈등이 초래되는 것이다(Callan

& Noller, 1986; Gecas & Seff, 1990; Peterson & Strivers, 1986; Savin-Williams & Small, 1986; Smetana, 1989). 실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30.9%가 가정생활에 불만족하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부모님의 이해부족, 잔소리, 간섭, 무관심 등으로 나타났다(천혜숙, 1999), 청소년 자녀와 부모간의 갈등은 주로 일상적 가족생활과 관련되어 일어났으며, 특히 아버지와 겪는 갈등은 대체로 사소하며 단편적으로 종결되는 반면 어머니와의 갈등은 잦고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주옥, 1993). 또한 가족관계와 같은 심리적 환경이 부정적인 가족에서는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 수준은 높아지고(최희선 등, 1997; Robertson et al, 1989), 그런 청소년들은 친구관계에 보다 집착하고 친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며 친구들의 유혹이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음주나 흡연, 외박이나 가출, 무단결석 등을 경험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김준호 · 김은경, 1995; 전병재, 1991).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적대적인 부모의 태도나 부모의 거절은 낮은 학업성취나 지적인 활동의 부진, 부족한 사회적 관계형성 등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Weiner, 1970), 부모와 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에 비해 비행또래집단에 이끌릴 가능성이 낮다(Gottfredson & Hirschi, 1994). 그 외 연구에서도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배숙진, 1998; 최지은 · 신용주, 2003), 특히 아버지와 청소년간의 긍정적인 관계가 어머니와 청소년간의 관계보다 학교생활 적응에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지은 · 신용주, 2003).

한편, 가족관계 중 부모자녀간의 관계 외에 형제자매간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로 부모의 편애로 인한 형제간의 갈등과 열등감, 잦은 싸움, 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재홍 등, 2000). 형제관계가 좋지 않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조윤정 · 김경신, 2000),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간의 비교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형제관계에 있어 온정적 태도보다는 무관심이나 적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Mussen et al, 1984).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2002년 7월 5일 ~ 7월 20일 동안에 창원시 소재 중학교 4개교, 일반고 3개교, 실업고 3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학교별로 1, 2, 3학년 각 1개 학급씩

총 3개 학급의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총 10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교과목 담당 선생님의 지도 하에 수업시간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여 1040부가 최종 회수되었으며,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39부를 제외하고 1001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용어의 조작적 정의

1) 청소년: 현재 창원시 중·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말한다.

2)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이 학교라는 생활영역 즉 교사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이성 관계 등에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 3. 조사도구

1) 학교생활 부적응 척도: 김기하(1997)의 60문항으로 된 '학교생활 부적응' 검사 척도의 문항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 부적응'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 당 문항 수는 12문항으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가족 관계 변인: 가족 관계 변인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김병석·이명우, 1998; 김창대·이명우, 1995)를 활용하였다.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의 네 가지 축인 호소문제, 문제환경, 관계유형, 발달과업 중에서 가족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호소문제 영역의 부모님관계, 형제관계에서의 호소내용들을 토대로 가족 관계 변인 척도를 구성하였다.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은 부모와의 거리감, 소홀, 무관심, 의사소통이 안됨, 지나친 관심과 개입, 부모에 대한 무서움, 부모의 체벌, 구타, 학대, 부모능력 부족으로 인한 열등감, 부모에 대한 반항, 반감, 무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은 형제간의 비교로 인한 갈등, 형제간의 불화, 형제간의 소외감, 형제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가족 관계 변인인 부모님관계에서의 어려움(13문항)과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3문항) 변인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가족환경 변인: 가족환경 변인 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화의 광장에서 청소년들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김병석·이명우, 1998; 김창대·이명우, 1995)를 활용하였다.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의 네 가지 축인 호소문제, 문제환경, 관계유형, 발달과업 중에서 가족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나타내 주는 문제환경 영역 중 가족환경의 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에 관한 내용들을 토대로 가족환경 변인 척도를 구성하였다.

가족환경의 물리적 환경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궁핍한 경우인 절대적 궁핍, 자신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궁핍한 가정의 경제상태를 의미하는 상대적 궁핍, 주거지의 시설상태 등 물리적으로 열악한 주거지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의 지위환경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사회전체의 수준에서 절대적으로 낮은 지위환경, 사회전체의 기준에서 볼 때 객관적으로는 낮지 않지만, 다른 가정과 견주어 볼 때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 환경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의 구조적 환경은 이혼, 별거, 부모가출 등의 극단적인 갈등의 결과로 인한 가족구성원의 부재, 갈등과 무관하게 맞벌이, 부모사망, 부모 장기 출장, 부모의 늦은 귀가 등으로 가정에 있어야 할 가족이 없어서 심리적 지지나 혹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의 가족구성원의 부재, 부모의 재혼 등 새로운 가족구성원이 생기는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의 문화적 환경은 남아선호가 심한 가정, 가족구성원간의 의사소통 방식이 주로 육설, 침묵, 야유, 농담 등 불건전한 언어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가정의 전체적인 문화가 지나치게 물질 지향적이거나 자기 가족만을 챙기는 문화의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 내 갈등은 고부간, 부모간, 다른 형제간, 부모-자녀간, 기타가족/친척간에 서로 반목과 갈등이 있어서 청소년 자신에게 심리적 불안, 압박 등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환경요소를 의미하는 경우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족환경 변인인 물리적 환경(6문항), 지위환경(2문항), 구조적 환경(6문항), 문화적 환경(4문항), 가족 내 갈등(5문항) 등 5개의 변인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에서의 어려움이 각각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가족배경 변인: 가족배경 변인으로는 가족원수, 거주상태, 부모님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취업, 어머니 취업 변인이 있다. 이중 거주상태와 부모님 결혼상태, 아버지 취업, 어

머니 취업 변인은 가변인으로, 거주상태는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를 0,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1로 묶어 가변인화 하였고,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를 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를 1로 묶어 가변인화 하였다. 또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하였다. 가족원수,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변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원 수가 많고,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으며, 아버지와 어머니 학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조사도구들의 문항 수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도구의 문항 수 및 신뢰도

	척도 (문항수)	Alpha
학교 부적응	교사관계(12)	.8304
	교우관계(12)	.7152
	학습활동영역(12)	.8396
	규칙준수관계(12)	.7563
	이성관계(12)	.9118
가족관계 변인	부모님 관계(13)	.7845
	형제 관계(3)	.6449
가족환경 변인	물리적 환경(6)	.6699
	지위환경(2)	.8694
	구조적 환경(6)	.6059
	문화적 환경(4)	.6597
	가족 내 갈등(5)	.6160

#### 4. 분석방법

청소년들의 성별, 학교별, 계열별로 조사대상자의 가족 배경 특성과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또한 성별, 학교별,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WIN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 IV. 연구 결과

#### 1. 조사대상자의 가족배경 특성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가족 배경 특성은 <표 2>와 같다. 성별로 살펴보면 가족원 수는 4~5명이라고 응답한 경

우가 남학생 집단 77.2%, 여학생 집단 80.7%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결혼상태도 이혼 / 별거, 재혼 등의 경우보다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남학생 집단 87.2%, 여학생 집단 89.8%로 가장 많으며, 거주상태도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남학생 집단 72.9%, 여학생 집단 72.7%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는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남학생 집단 66.8%, 여학생 집단 67.2%로 가장 많았고, 아버지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남학생 집단이 49.5%, 여학생 집단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어머니 학력에서는 고졸인 경우가 남학생 집단 57.1%, 여학생 집단 66.5%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취업상태는 맞벌이인 경우가 남학생 집단 60.2%, 여학생 집단 59.6%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로 보면 가족원 수는 4~5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중학교 집단 82.9%, 고등학교 집단 76.1%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결혼상태도 이혼 / 별거, 재혼 등의 경우보다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중학교 집단 94.4%, 고등학교 집단 84.3%로 가장 많으며, 거주상태도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중학교 집단 71.6%, 고등학교 집단 73.7%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는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중학교 집단 63.3%, 고등학교 집단 69.6%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고졸인 경우가 중학교 집단이 47.4%, 고등학교 집단이 53.3%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학력에서는 중학교 집단 60.6%, 고등학교 집단 62.9%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취업상태는 맞벌이인 경우가 중학교 집단 61.6%, 고등학교 집단 58.7%로 가장 많았다.

계열별로 보면 가족원 수는 4~5명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인문계 집단 82.5%, 실업계 집단 70%로 가장 많았고, 부모님의 결혼상태도 이혼 / 별거, 재혼 등의 경우보다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인문계 집단 92%, 실업계 집단 76.8%로 가장 많으며, 거주상태도 자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인문계 집단 85.5%, 실업계 집단 62%로 가장 많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에서는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인문계 집단 68.8%, 실업계 집단 70.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 학력은 인문계 집단에서는 46.1%로 대졸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실업계 집단은 고졸이 61.1%로 가장 많았다. 어머니 학력에서는 고졸인 경우가 인문계 집단 66.9%, 실업계 집단 58.9%로 가장 많았다. 부모님의 취업상태는 맞벌이인 경우가 인문계 집단 54.1%, 실업계 집단 63.7%로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별, 계열별로 살펴본 가족 배경 특성은 전반적으로 비슷하여서, 가족원 수 4~5명인 경우, 자택 거주인 경우,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중간정도의 생활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한

표 2 조사대상자의 가족 배경 특성

N(%)

변인	범주	성별		학교별		계열별	
		남	여	중	고	인문계	실업계
가족원 수	3명 이하	75(16.1)	50(10.3)	38( 9.7)	87(15.6)	32(11.7)	55(19.4)
	4~5명	359(77.2)	392(80.7)	325(82.9)	424(76.1)	226(82.5)	198(70.0)
	6명 이상	31( 6.7)	44( 9.1)	29( 7.4)	46( 8.3)	16( 5.8)	30(10.6)
부모님의 결혼상태	함께 살고 있음	431(87.2)	451(89.8)	388(94.4)	490(84.3)	265(92.0)	225(76.8)
	이혼/별거	35( 7.1)	28( 5.6)	17( 4.1)	46( 7.9)	12( 4.2)	34(11.6)
	재혼	13( 2.6)	13( 2.6)	2( 0.5)	24( 4.1)	5( 1.7)	19( 6.5)
	사망 또는 행방불명	15( 3.0)	10( 2.0)	4( 1.0)	21( 3.6)	6( 2.1)	15( 5.1)
거주상태	자택	360(72.9)	363(72.7)	292(71.6)	428(73.7)	247(85.5)	181(62.0)
	전/월세	115(23.3)	124(24.8)	105(25.7)	133(22.9)	34(11.8)	99(33.9)
	친척집 및 기타	19( 3.8)	12( 2.4)	11( 2.7)	20( 3.4)	8( 2.8)	12( 4.1)
주관적 생활수준	하	74(14.9)	55(11.0)	31( 7.5)	98(16.8)	32(11.1)	66(22.4)
	중	332(66.8)	336(67.2)	260(63.3)	405(69.6)	198(68.8)	207(70.4)
	상	91(18.3)	109(21.8)	120(29.2)	79(13.6)	58(20.1)	21( 7.1)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67(13.9)	41( 8.2)	20( 4.9)	88(15.5)	19( 6.7)	69(24.4)
	고졸	239(49.5)	260(52.2)	195(47.4)	302(53.3)	129(45.4)	173(61.1)
	대졸이상	138(28.6)	169(33.9)	147(35.8)	159(28.0)	131(46.1)	28( 9.9)
	모르겠다	39( 8.1)	28( 5.6)	49(11.9)	18( 3.2)	5( 1.8)	13( 4.6)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93(19.3)	59(12.0)	32(7.9)	120(21.2)	36(12.7)	84(29.8)
	고졸	276(57.1)	326(66.5)	245(60.6)	356(62.9)	190(66.9)	166(58.9)
	대졸이상	69(14.3)	76(15.5)	78(19.3)	65(11.5)	50(17.6)	15( 5.3)
	모르겠다	45( 9.3)	29( 5.9)	49(12.1)	25( 4.4)	8( 2.8)	17( 6.0)
부모님의 취업상태	아버지만 취업	166(35.7)	181(36.8)	152(37.2)	193(35.4)	124(43.8)	69(26.3)
	어머니만 취업	13( 2.8)	8( 1.6)	3( 0.7)	18( 3.3)	3( 1.1)	15( 5.7)
	맞벌이	280(60.2)	293(59.6)	252(61.6)	320(58.7)	153(54.1)	167(63.7)
	부모 모두 비취업	6( 1.3)	10( 2.0)	2( 0.5)	14( 2.6)	3( 1.1)	11( 4.2)

\* 무응답은 missing 처리하여 빈도수가 다름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 수준도 대개가 고졸이었으며, 부모님이 맞벌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2.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성, 성/학교, 학교, 계열별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

청소년의 성별로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남학생이 1.82, 여학생이 1.66으로 남학생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이혜령, 2000; 주현정, 1998; 정유진, 1999)과 유사한 결과인 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배기명(1983), 현희순·김양순(1999)의 선행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한편, 하위 영역별로는 남학생은 학습활동(2.16)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

관계(1.88), 이성관계(1.85), 규칙준수(1.73), 교우관계(1.49)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도 학습활동(2.07)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83), 규칙준수(1.49), 교우관계(1.46), 이성관계(1.44)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하위 영역들 모두에서 부적응하는 정도가 여학생보다 높으며, 특히 이성관계, 규칙준수 면에서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김영희(1992)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남학생이 이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규칙 준수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는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하(1989)의 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성장 정도나 학교나 성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



성숙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 학교를 함께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들은 학습활동(1.87)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70), 이성관계(1.49), 교우관계(1.48), 규칙준수(1.47)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도 학습활동(2.24)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이성관계(1.95), 교사관계(1.93), 규칙준수(1.80), 교우관계(1.49)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은 학습활동(2.05)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80), 규칙준수(1.48), 이성관계(1.47), 교우관계(1.47)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도 학습활동(2.10)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교사관계(1.88), 규칙준수(1.50), 교우관계(1.43), 이성관계(1.41)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비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모든 집단에서 학습활동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습활동뿐만 아니라 교사관계, 교우관계, 규칙준수, 이성관계 등 모든 학교생활 영역에서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들 보다 가장 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우관계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여자 중학생의 경우 더 힘들어하였고, 교사관계, 규칙준수,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중학교 학생이 1.64, 고등학교 학생이 1.81로 고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유윤희(1994)의 연구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한편, 하위 영역별로는 중학교 학생은 학습활동(2.00)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77), 교우관계(1.48), 규칙준수(1.48), 이성관계(1.47)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도 학습활동(2.19)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91), 이성관계(1.76), 규칙준수(1.70), 교우관계(1.47)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별로 비교해 보면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생활 부적응의 하위 영역들 모두에서 부적응하는 정도가 중학교 학생보다 높으며, 특히 교우관계를 제외하고 교사관계, 학습활동, 규칙준수, 이성관계 면에서는 그 부적응 정도의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실업계 학생이 1.84, 인문계 학생이 1.78로 실업계 학생의 부적응 정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계선자 등(2001)의 연구, 실업계보다 인문계의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홍문균(1996)의 연구,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보다 학교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의 조사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하위 영역별로는 인문계 학생은 학습활동(2.14)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96), 규칙준수(1.65), 이성관계(1.65), 교우관계(1.50)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학생도 학습활동(2.25)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87), 이성관계(1.87), 규칙준수(1.75), 교우관계(1.44) 순으로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교사관계, 교우관계 면에서는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더 부적응하는 정도가 높으며, 학습활동, 규칙준수, 이성관계 면에서는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더 부적응하는 정도가 높았다. 학습 활동에 있어서 실업계 학생들이 인문계 학생들보다 더 부적응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생에 비하여 학습량에 대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1998년 한국교원단체 총 연합회의 조사결과와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실업계 학생들이 부적응하는 정도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높으나,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이 없으므로 부적응으로 인한 부담감이나 스트레스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실업고생이 인문고생보다 이성교제 비율이 더 높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실업고생이 인문고생에 비하여 이성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성별, 학교별, 계열별로 전체적으로 함께 비교해 보면, 학습활동에서의 부적응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더 높았으며, 성과 학교를 함께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부적응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더욱더 부적응적인 것을 살펴볼 때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실업계 학생인 경우에는 그 부적응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사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실업계보다 인문계 학생들이 더 높았으며,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부적응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인문계 학생인 경우에 그 부적응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교우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들이 더 높았으며,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부적응의 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표 3 청소년의 성별, 성/학교별, 학교별, 계열별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

변인(문항수)	전체	성별		성 / 학교				학교별		계열별		
		남 (N=497)	여 (N=504)	남		여		중 (N=413)	고 (N=584)	인문계 (N=290)	실업계 (N=294)	
				중 (N=110)	고 (N=384)	중 (N=303)	고 (N=200)					
교사 관계 (12)	M	1.86	1.88	1.83	1.70	1.93	1.80	1.88	1.77	1.91	1.96	1.87
	S.D	0.51	0.48	0.53	0.49	0.46	0.55	0.51	0.54	0.48	0.48	0.47
교우 관계 (12)	M	1.47	1.49	1.46	1.48	1.49	1.47	1.43	1.48	1.47	1.50	1.44
	S.D	0.34	0.34	0.34	0.33	0.34	0.37	0.30	0.36	0.33	0.34	0.31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 활동 (12)	M	2.11	2.16	2.07	1.87	2.24	2.05	2.10	2.00	2.19	2.14	2.25
	S.D	0.54	0.53	0.54	0.48	0.51	0.58	0.48	0.56	0.50	0.51	0.50
규칙 준수 (12)	M	1.61	1.73	1.49	1.47	1.80	1.48	1.50	1.48	1.70	1.65	1.75
	S.D	0.45	0.46	0.40	0.37	0.45	0.44	0.35	0.42	0.44	0.40	0.48
이성 관계 (12)	M	1.64	1.85	1.44	1.49	1.95	1.47	1.41	1.47	1.76	1.65	1.87
	S.D	0.64	0.69	0.52	0.58	0.68	0.57	0.43	0.57	0.66	0.64	0.66
총 학교생활 부적응 (60)	M	1.74	1.82	1.66	1.60	1.88	1.65	1.67	1.64	1.81	1.78	1.84
	S.D	0.39	0.39	0.38	0.35	0.37	0.41	0.32	0.40	0.37	0.36	0.37

주 : 평균(M)과 표준편차(S.D)는 모두 문항수로 나눈 평균과 표준편차임

결과는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인문계 학생인 경우에 그 부적응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규칙준수에서의 부적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인문계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더 높았으며,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부적응의 정도를 나타냈고, 이러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실업계 학생인 경우에 그 부적응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성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인문계보다 실업계 학생들이 더 높았으며,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부적응의 정도를 나타냈고, 이러한 결과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실업계 학생인 경우에 그 부적응의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실업계 학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남학생, 고등학생, 인문계 학생, 여학생, 중학생 순으로 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총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그 하위영역들 전반에 걸쳐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학생들이 더 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는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부적응 정도가 높았으므로,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실업계 학생들인 경우에 총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가장 그 정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전체 조사대상자를 살펴볼 때, 청소년의 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는 1.74로 나타나 4점 척도의 중간점인 2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부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부적응 정도가 1.47~2.11의 점수로 나타나 하위영역별로도 전반적으로 부적응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심각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리라 보여진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의 5가지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활동(2.11)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86), 이성관계(1.64), 규칙준수(1.61), 교우관계(1.47) 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입시 부담감이 반영되어 학습활동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 3.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성, 성/학교, 학교, 계열별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가족배경 변인들(가족원 수, 거주 상태, 부모님 결혼상태, 주관적 생활수준, 아버지 학력, 아버지 취업, 어머니 취업), 가족환경 변인들(물리적 환경, 지위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가족 내 갈등)과 가족관계 변인(부모님 관계, 형제관계)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영향력 있는 변인과 설명력을 파악하였다.

청소년의 성별, 성/학교별, 학교별, 계열별로 살펴본

표 4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082**	1.00													
3	-.001	.101**	1.00												
4	.008	.124**	.744**	1.00											
5	-.120**	-.259**	-.116**	-.125**	1.00										
6	-.139**	-.212**	-.043	-.071*	.274**	1.00									
7	-.061	-.192**	-.085**	-.055	.147**	.163**	1.00								
8	.008	-.041	.084**	.010	-.102**	-.046	.022	1.00							
9	-.055	-.133**	-.045	-.041	.071*	.136**	.074*	-.005	1.00						
10	.038	-.073*	-.054	-.071*	.026	-.036	.029	.016	.421**	1.00					
11	-.080*	-.382**	-.104**	-.097**	.220**	.282**	.222**	.001	.503**	.280**	1.00				
12	-.048	-.365**	-.141**	-.143**	.218**	.216**	.214**	-.031	.391**	.188**	.635**	1.00			
13	-.027	-.163**	-.075*	-.097**	.146**	.324**	.148**	-.034	.510**	.297**	.547**	.441**	1.00		
14	.000	-.104**	-.042	-.056	.047	.121**	.076*	.005	.518**	.366**	.429**	.355**	.495**	1.00	
15	.018	-.160**	-.063*	-.071*	.102**	.137**	.133**	.016	.568**	.479**	.445**	.390**	.503**	.520**	1.00
M	4.00	3.06	3.94	3.66	0.27	0.11	3.905 E-02	0.37	20.35	4.69	8.77	2.93	7.61	5.16	7.14
S.D	1.26	0.68	1.33	1.26	0.44	0.31	0.19	0.48	5.28	1.85	2.91	1.46	2.27	1.79	2.23

\*P<.05 \*\*P<.01 \*\*\*P<.001

1: 가족원수 2: 주관적 생활수준 3: 아버지 학력 4: 어머니 학력 5: 거주상태 6: 부모님 결혼 상태 7: 아버지 취업유무 8: 어머니 취업유무 9: 부모님 관계 10: 형제 관계 11: 물리적 환경 12: 지위환경 13: 구조적 환경 14: 문화적 환경 15: 가족 내 갈등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5>, <표 6>에 제시하였다.

한편,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아버지학력과 어머니학력, 부모님관계와 물리적 환경, 부모님관계와 구조적 환경, 부모님관계와 문화적 환경, 부모님관계와 가족 내 갈등, 물리적 환경과 지위환경,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구조적 환경과 가족 내 갈등, 문화적 환경과 가족 내 갈등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50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50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들 변수들 중에서 아버지 학력과 어머니 학력간에는 .74의 높은 상관이 나타나, 두 변인 중 어머니 학력 변인을 독립변수에서 제외시켰고, 그 외에 .50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머지 변수들에 대해서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회귀분석 시의 분산팽창계수(VIF) 값을 통해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회귀분석 시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말하나(박성현, 1989), 회귀분석 결과 이 수치가 1.01~2.33의 값을 보이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관

련된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고 회귀분석 결과를 해석하였다. 참고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성, 성/학교, 학교,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먼저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5.2%이며, 거주상태, 부모님 관계,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구조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부모님 관계,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여학생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8.6%이며,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부모님 관계, 형

표 5 창원시 중·고등학생의 성별, 성/학교별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

변인	성별				성/학교								
	남(N=455)		여(N=485)		남(N=106)		고(N=346)		여(N=296)		고(N=189)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족 배경	가족원수	-.706	-.041	-2.794	-.135**	-2.953	-.207*	2.378 E-02	.001	-2.863	-.125*	-1.658	-.097
	거주상태 @	-7.507	-.137**	-.505	-.010	-7.069	-.155	-4.023	-.074	-2.3 E-02	.000	-.502	-.011
	부모님 결혼상태 @	-4.267	-.051	.856	.011	-9.071	-.070	-5.352	-.074	9.009	.083	-1.037	-.018
	주관적 생활수준	-1.638	-.046	-2.370	-.069	-.751	-.024	1.299	.038	-1.377	-.037	-4.194	-.137
	아버지 학력	-6.84 E-02	-.004	-1.721	-.090*	-.199	-.018	-.568	-.030	-1.986	-.110*	.112	.005
	아버지 취업@	-3.610	-.031	-4.867	-.040	-21.475	-.097	-3.453	-.035	-9.506	-.044	-5.722	-.077
	어머니 취업@	2.700 E-02	.001	-1.577	-.033	-1.098	-.025	.365	.008	-4.243	-.082	3.150	.079
가족 관계	부모님 관계	.942	.207***	1.015	.241***	.209	.048	.895	.208**	1.182	.248**	.841	.245*
	형제 관계	.189	.014	1.859	.154**	1.633	.138	.626	.048	1.590	.129*	1.929	.168*
가족 환경	물리적 환경	1.779	.221***	1.189	.141*	1.107	.128	1.846	.249***	1.337	.133		.135
	지위 환경	-1.633	-.106	-1.162	-.068	1.883	.115	-2.007	-.142*	-2.212	-.111	.540	.040
	구조적 환경	2.546	.260***	6.959 E-02	.006	2.578	.266*	2.144	.233**	.388	.031	-.842	-.096
	문화적 환경	-.162	-.012	2.101	.169**	-1.755	-.185	1.648	.116	3.022	.197**	1.893	.208*
	가족 내 갈등	5.574 E-02	.005	-.721	-.071	2.516	.234	-.732	-.075	-.594	-.051	-.895	-.110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252(.228)		.286(.265)		.376(.280)		.262(.230)		.325(.291)		.293(.236)		
F값	10.591***		13.458***		3.910***		8.379***		9.647***		5.146***		

\*P<.05 \*\*P<.01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경우=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제 관계, 물리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

표 6 창원시 중·고등학교의 학교별, 계열별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변인		학교별				계열별			
		중(N=402)		고(N=535)		인문(N=277)		실업(N=258)	
		B	$\beta$	B	$\beta$	B	$\beta$	B	$\beta$
가족 배경	가족원수	-2.816	-.143**	-1.380	-.078*	-1.811	-.101	-.991	-.056
	거주상태@	-1.719	-.032	-4.742	-.090*	-7.778	-.122*	-3.839	-.081
	부모님 결혼상태@	5.858	.053	-4.961	-.072	-6.117	-.069	-4.441	-.074
	주관적 생활수준	-1.051	-.029	.629	.018	1.551	.049	-.643	-.017
	아버지 학력	-.842	-.054	-1.153	-.057	-1.161	-.051	-8.05 E-02	-.004
	아버지 취업@	-8.813	-.040	-3.279	-.035	-5.684	-.038	-2.959	-.040
	어머니 취업@	-3.556	-.071	1.261	.028	1.122	.026	2.606	.054
	가족 관계	부모님 관계	1.134	.242***	.807	.195***	.682	.164*	1.047
	형제 관계	1.582	.129*	.659	.051	.392	.028	.658	.053
가족 환경	물리적 환경	1.290	.133*	1.729	.234***	2.045	.250**	1.336	.196*
	지위 환경	-1.058	-.055	-1.001	-.069	-.652	-.045	-1.202	-.084
	구조적 환경	.639	.055	1.510	.160**	1.729	.181*	1.165	.125
	문화적 환경	1.241	.094	1.358	.110*	.966	.070	1.655	.146
	가족 내 갈등	.295	.026	-.784	-.082	-.363	-.039	-1.349	-.139
R <sup>2</sup> (adjusted R <sup>2</sup> )		.297(.272)		.232(.212)		.243(.202)		.238(.194)	
F값		11.694***		11.246***		5.998***		5.429***	

\*P<.05 \*\*P<.01 \*\*\*P<.001

@ 가변인

거주상태는 자택거주 =0, 자택에 거주하지 않음=1로 묶어 가변인화

부모님 결혼상태는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경우=0,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1로 묶어 가변인화

아버지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 유=0, 무=1로 가변인화

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문화적 환경, 형제관계, 물리적 환경,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남학생,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가족 배경 변인들보다는 가족 관계 변인들과 가족 환경 변인들에서 더 영향력 있는 변인들이 나타났다. 성별로 비교해 보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 집단에 비해 구조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변인이 더 중요한 변인이었고, 여학생 집단에서는 남학생 집단에 비해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 변인이 더 중요한 변인이었음을 볼 때, 여학생들은 가족 환경적인 요소보다도 부모님 관계나 형제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적인 면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고 형성해 나가느냐가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더 중요하고, 남학생들에게는 가족 관계적인 요소보다도 가정의 경제상태, 주거지 환경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측면 또는 가족원의 부재 및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과 같은 구조적인 환경 측면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더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

서는 가족 환경 변인들 중에서 남학생 집단과 달리 가족 구성원의 의사소통 방식 등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환경 변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점을 살펴볼 때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가족의 정서적, 심리적, 문화적 측면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성장 정도나 학교나 성적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정신적 성숙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 학교를 함께 통제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자 중학생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37.6%이며, 가족원 수, 구조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구조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구조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가족원 수로 나타났다. 남자 고등학생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

용 모델의 설명력은 26.2%이며, 부모님 관계, 물리적 환경, 지위 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위환경 변인은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지위환경에서의 어려움이 적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구조적 환경, 부모님 관계, 지위 환경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생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32.5%이며,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문화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며, 그 다음 문화적 환경, 형제 관계,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 고등학생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9.3%이며,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문화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며, 그 다음 문화적 환경, 형제 관계 변인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족원 수 변인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지위환경 변인이 부적인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는 물리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었으나,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 중학생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여학생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변인이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으나, 여자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9.7%이며, 가족원 수, 부모님 관계, 형제 관계, 물리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가족원 수, 형제 관계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고등학교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3.2%이며, 가족원 수, 거주상태, 부모님 관계,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님 관계 변인,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거주상태, 가족원 수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집단 모두에서 가족 배경 변인들보다는 가족 관계 변인들과 가족 환경 변인들에서 더 영향력 있는 변인들이 나타났다. 학교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교 집단에서는 고등학교 집단에 비해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 변인이 더 중요한 변인이었고,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중학교 집단에 비해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문화적 변인이 중요한 변인이었음을 볼 때, 고등학생에 비해 연령이 낮은 중학생들에게는 가족에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같은 가족 관계적인 측면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더 중요하고, 좀 더 성장한 고등학생들에게는 가족 관계측면보다는 가정의 경제 상태, 주거지 환경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측면이나 가족원의 부재 및 새로운 가족구성원의 등장과 같은 구조적 환경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더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계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4.3%이며, 거주상태, 부모님 관계,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구조적 환경, 부모님 관계,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실업계 집단의 학교생활 부적응 모델의 설명력은 23.8%이며, 부모님 관계, 물리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에서

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 변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인문계, 실업계 집단 모두에서 가족 배경 변인들보다는 가족 관계 변인들과 가족 환경 변인들에서 더 영향력 있는 변인들이 나타났다. 계열별로 비교해 보면 인문계 집단에서는 실업계 집단에 비해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 변인이 중요한 변인이었고, 실업계 집단에서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중요한 변인이었음을 볼 때, 실업계 학생들은 가족에서 부모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와 같은 가족 관계적인 측면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더 중요하고, 인문계 학생들은 가정의 경제 상태, 주거지 환경과 같은 물리적인 환경 측면이나 가족원의 부재 및 새로운 가족 구성원의 등장과 같은 구조적 환경이 학교생활 적응에 더욱더 중요하리라 사료된다.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들과는 달리 졸업 후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업과 입시 준비에 몰두하게 되는데, 가족의 경제적 측면이나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주거지 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가족 구성원의 상실 및 새로운 등장과 같은 구조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학업과 입시준비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이 실업계 학생들보다 더욱더 가족 환경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들 중 물리적 환경, 구조적 환경과 같은 가족 환경 변인들과 부모님 관계와 같은 가족 관계 변인이 매우 중요한 가족 관련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가족의 환경특성 중에서도 가족의 물리적 환경이나 구조적 환경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김준호, 1993; 이재철, 1994; 오미경, 1998; Needle et al, 1990), 가족관계와 같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전병재, 1991; 김준호·김순형, 1995; 김준호·김은경, 1995; 노성호, 1992; 오미경, 1998; Robertson & Simons, 1989), 부모자녀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배숙진, 1998; 최지은·신용주, 2003)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도 유사한 결과이다.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교 환경에서의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 학교,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총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는 1.74로 나타나 4점 척도의 중간점인 2점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전반적으로 부적응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정도가 우려한 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의 5가지 하위영역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학습활동(2.11)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다음 교사관계(1.86), 이성관계(1.64), 규칙준수(1.61), 교우관계(1.47) 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학교,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를 살펴보면, 학습 활동에서의 부적응은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았으며, 교사 관계와 교우 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인문계 학생들이 가장 높았고, 규칙 준수와 이성관계에서의 부적응은 실업계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별, 계열별 모든 집단 중 실업계 학생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남학생, 고등학생, 인문계 학생, 여학생, 중학생들 순으로 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인문계보다는 실업계 학생들이 더 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 비교에서 중/고등학생을 분리하여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학습활동은 가장 힘들어하는 영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습활동 뿐만 아니라 교사관계, 교우관계, 규칙준수, 이성관계 등 모든 학교생활 영역에서 남자 중학생, 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들 보다 가장 부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교우관계나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여자 중학생의 경우 더 힘들어하였고, 교사관계, 규칙준수, 학습활동에 있어서는 여자 고등학생의 경우 더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성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남학생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구조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부모님 관계,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문화적 환경, 형제관계, 물리적 환경, 가족원 수, 아버지 학력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아버지 학력이 낮을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

적 환경과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과 학교를 함께 통제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 되지 못하였고,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구조적 환경 변인이,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물리적 환경 변인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는 물리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었으나,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 중학생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여자 중학생 집단과 여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가장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학교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중학교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 가족원 수, 형제 관계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이 클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부모님 관계 변인,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 거주상태, 가족원 수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가족원 수가 적을수록,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 문화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청소년들의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인문계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구조적 환경, 부모님 관계, 거주상태 변인 순으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 집단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부모님 관계 변인이었으며, 그 다음 물리적 환경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물리적 환경에서의 어려움을 많이 느낄수록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

적응을 이해하고, 부적응 예방 및 적응 교육 등의 개입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의 하위 영역들 중에서 학습 활동에서의 부적응이 성, 학교, 계열별 모든 집단에서 가장 높았음을 살펴볼 때,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 위주의 학교 교육 체제에서 공부에 대한 부담감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서 이것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입시 위주 학교 교육의 제도적 개선과 학업 외의 진로적성에 알맞는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 개설 및 청소년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둘째, 연구결과에서 성별, 학교별, 계열별 집단에 있어서 학교생활 부적응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므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개입에서는 성별, 학교별, 계열별에 따른 차별적인 개입과 지도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학교생활 부적응 점수에서 성별, 학교별, 계열별 모든 집단들 중 실업계 학생들의 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남학생, 고등학생, 인문계 학생, 여학생, 중학생 집단 순으로 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에서도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가장 부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남자 고등학생이면서 실업계 학생인 경우에 학교생활 부적응이 보다 높을 것으로 사료되어,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또한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에 학습활동, 규칙준수, 이성관계에서의 부적응 정도가 성과 학교를 통제한 4집단들(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 중에서 가장 높았고, 실업계 학생들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특히 학습활동, 규칙 준수, 이성 관계에서의 부적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실업계 남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예방 교육 및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때에는 학교 규칙 준수와 이성 관계, 학습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개발하고 실시하여야 하겠다.

2) 인문계 고등학생은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교사 관계와 교우 관계에서 부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4집단(여자 중학생, 여자 고등학생, 남자 중학생, 남자 고등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에서도 남자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관계, 교우관계에서 부적응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남자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교우, 교사들과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학교생활 어려움의 정도도 많이 다를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교사, 교우들과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인 관계 훈련 프로그램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들 중에서 가정의 경제 상태, 주거지 환경과 같은 물리적 환경 변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실업계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과는 차별되는 특징으로 보여져, 인문계 고등학생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생과 중학생들에 비하여 가족 관계보다 가족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심리 내적인 면에 영향을 미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쉽게 변화하기 어려운 가족의 물리적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상담 및 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3) 성별, 학교별, 계열별로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관련 변인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고등학생들은 중학생들에 비해, 인문계 학생들은 실업계 학생들에 비해서 구조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 변인과 같은 가족 환경 변인이 더 중요한 변인이었고,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에 비해, 실업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에 비해서 부모님 관계와 형제 관계 변인과 같은 가족 관계 변인이 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 집단에서는 부모님 관계 변인이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남자 중학생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 있는 변인이 되지 못하였고, 남자 고등학교 집단에서만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었다는 점과 여학생 집단에서는 물리적 환경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 변인이었으나, 성과 학교를 통제하여 살펴본 결과 여자 중학생 집단, 여자 고등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도 성별, 학교별, 계열별에 따라 개입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차별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즉 여학생, 중학생, 실업계 학생들은 가족 구성원과의 정서적, 심리적 관계 측면을 이해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이해하여야 하며, 남학생, 고등학생, 인문계 학생들은 가족 환경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학교생활 부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가를 이해하여야 하겠고, 특히 남자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남자 중학생

집단에 비하여 부모님과의 관계 측면을 더욱 중요시하면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 등을 차별화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생활 부적응을 단순히 그 개인과 가족의 문제만으로 보고 접근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학교,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가족관련 변인 외에도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학교와 지역사회 관련 변인들도 포함시켜 관련변인과 그 영향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을 분석함에 있어 가족관련 변인이 미치는 영향만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과 조사대상이 창원시 청소년으로 한정되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주제어** : 학교생활 부적응, 교사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교우 관계

## 참 고 문 헌

- 계선자·이정우·김명자·박미석·유율용(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실태 및 학교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9권 2호, 대한가정학회, 57-72.
- 교육학사전편찬위원회 편(1993). 교육학대사전.
- 국민일보(1997). '중고생 10명 중 7명 학교생활 힘들어요', 1월 16일자.
- 국민일보(2000). '학교 부적응생 크게 늘었다', 3월 13일자.
- 권복순·이경은·이성희(1997). 학교 부적응에 대한 학교 사회사업실천,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개발연구원, 93-109.
- 권이중(1996). 청소년학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 김기하(1997). 중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태·류기형·최선화·최송식·최인욱·조덕자·박봉관·서덕용·오홍숙·양주근(1996). 학교 부적응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위한 문제해결 프로그램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 6호.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김미하(1989). 학교규칙의 내용과 준수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병석·이명우(1998). 청소년문제유형분류체계 사용자 지침서(종합편),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선애(1995). 아동 및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 연구-가족요인을 중심으로, 상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1992). 청소년의 성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수(1993). 청소년 비행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서(1983). 현대교육론(II),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주홍(1993). 한국의 도시화와 청소년 비행의 원인분석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준호(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순형(1995). 가정환경과 청소년비행,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김은경(1995). 여자청소년의 비행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창대·이명우(1995).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 II,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창대·이정운·이영선·남상인(1994). 청소년 문제유형 분류체계-기초연구, 청소년 대화의 광장.
- 김현주(2000). 학교사회사업 도입을 위한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요인 분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방희(1986). 학생비행의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성호(1992). 청소년문제론,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류경희(2003). 청소년의 가족관계, 가족환경과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실태 및 그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창원 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연구 3권 1호, 국립7개대학 자연·자원공동연구소.
- 문형춘(1999). 청소년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 서울 청소년 상담연구, 1(1), 41-50.
- 박성현(1989). 회귀분석, 민영사.
- 박성정(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 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용현(1983). 학교사회, 서울: 배영사.
- 박현선(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사업학회지, 2, 105-125.
- 배기명(1983).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에 따른 적응문제 및 적응기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숙진(1998). 청소년에게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학교적응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미경(1998). 감각추구성향과 사회화 요인이 남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수연(1999).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과업중심모델을 적용하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윤희(1994). 학교적응·불안·학업성취간의 관계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은(1998). 학교생활부적응 유형과 요인에 따른 학교사회사업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희·이경은(1998). 도시중등학교에서의 학교사회사업 모형 연구. 학교사회사업창간호.
- 이정순(1996). 학생의 가정문화와 문화습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1998). 자아상, 성태도, 충동성과 성행동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옥(1993).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철(1994).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학교 적응도 및 개인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태인(1995).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집단사회사업의 효과-학교사회사업의 도입을 위한 실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령(2000). 고등학생의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1994).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 장재홍·김현주·이호준·김태성(2000). 가족상담 연구개발 IV: 청소년기 가족문제와 가족상담의 방향,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병재(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낙인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정유미·김득성(1998). 청소년의 환경적 변인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부산시내 실업계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3), 31-45.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변인,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인(1997).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학교사회사업의 역할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선일보(2001). 학생 절반 이상 '자퇴 고려', 12월 23일자.
- 조선일보(2002). 청소년 10명 중 6명 학교생활에 만족 못해, 11월 20일자.
- 조선일보(2002b). 수능 성적 비판 여자 재수생 투신 자살, 11월 7일자.
- 조운정·김경신(2000). 남자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 관련 변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45-65.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혜숙(1999).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의식과 욕구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청소년 대화의 광장(1996). 청소년 학업상담, 서울: 정민사.
- 최영자(1999). 아버지-자녀 간 의사소통이 청소년 폭력 비

- 행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외선·백양희·이미옥(1997). 부모자녀 유대관계와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7-40.
- 최지은·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8). 학생생활·의식실태조사.
- 한국청소년개발원(1993). 청소년 가정지도의 실태와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현희순·김양순(1999).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1), 249-262.
- 홍문균(1996). 고등학교 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 갈등요인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allan, V. J. & Noller, P.(1986). Perceptions of communicative relationships in families with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pp. 813-820).
- Dusek, J. B.(1987). *Adolescent development and behavior*,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Gecas, V. & Seff, M. A.(1990). Families and adolescents: A review of the 1980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 941-958).
- Gottfredson, M. R., & Hirschi, T.(1994). A general theory of adolescent problem behavior: Problems and prospects. In R. Ketterlinus & M. E. Lamb (Eds.),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Hillsdale, NJ: Erlbaum.
- Halleck, S.,(1967). *Psychiatry and the Dilemmas of Crime*, N.Y., Harper.
- Hoffman, L.(1979). Maternal employment:1979, *American Psychologist*, 34, (pp. 859-865).
- Hoffman, L.(1980). The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on the academic attitudes and performance of school-aged children, *School Psychology Review*, 9, (pp. 319-335).
- Kagan, J.(1980). The influence of the family, *School Psychology Review*, 9, (pp. 298-311).
- McGuire, K.D.,& Weisz, J.R.(1982). Social cognition and behavior correlates of preadolescent chumship. *Journal of Child Development*, 53, (pp. 1478-1484).
- Montemayor, R.(1982).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dolescent conflict and the amount of time adolescents spend alone and with parents and peers. *Child Development* 53, (pp. 1512-1519).
- Montemayor, R.(1983). Parent & adolescents in conflict:All families some of the time, some families most of the tim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 (pp. 83-103).
- Montemayor, R.(1986). Family variation in parent-adolescent storm and stres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pp. 15-31).
-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C.(1984).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6th ed.)*. New York :Haper & Row.
- Needle, R.H., Su, S.S. & Doherty, W.J.(1990). Divorce, remarriage, and adolescent substance use: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pp. 157-169).
- Peterson, G. W., & Strivers, M. E.(1986). Adolescents' behavioral autonomy and family connectedness in rural Appalachia, *Family Perspective*, 20(4), (pp. 307-322).
- Robertson, J. F. & Simons, R. L.(1989). Family Factors, Self-esteem, and Adolescent Dep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pp. 125-137).
- Savin-Williams, R. C. & Small, S. A.(1986). The timing of puberty and its relationship to adolescent and parent perceptions of family interac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2(3), (pp. 342-347).
- Smetana, J. G.(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pp. 1052-1067).
- Shagle, S. C. & Barber, B. K.(1993). Effects of Family, Marital and Parent-Child Conflict on Adolescent Self-Derogat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1), (pp. 964-974).
- Steinberg, L. D.(1981). Transformations in family relations at puberty, *Developmental Psychology*, 17(6), (pp. 833-840).
- Weiner, I.B.(1970). *Psychological disturbance in adolescence*,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3. 11. 24 접수; 2004. 02. 20 채택)